

2025. 6. 13.(금)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6월 13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과장	최소정	02-2133-3961
평생교육정책팀장	우효정	02-2133-3962
시민대학본부장	김혜영	02-739-4459
모두의학교운영팀장	전아림	02-852-7297
누리집	sll.seoul.go.kr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7쪽

서울시민대학, 시민박사 12명 첫 배출.. 도시문제 해결하는 시민연구자 양성

- 9일(월) 열린 ‘제7회 명예시민학위 수여식’서 시민박사 12명 포함 총 217명 학위받아
- 시민박사, 사회적 고립·갈등 해결·저출생 등 서울시정 및 사회현안 관련 연구성과 내놔
- 올해부터 ‘전공 제도’ 신설해 교육과정 심화... 유관 전문기관 연계 통한 전문성 제고도
- 시 “학교 중심 교육 넘어 평생학습의 지평 넓힌다는 시민대학 사명 다하기 위해 최선”

“시민박사과정은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서울시민으로서의 태도를 정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2년은 정답이 없는 질문을 붙잡고 나아갈 방향을 찾았던 모색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색의 중심엔 ‘내 연구가 서울시민 삶의 현장으로 어떻게 구체화 되어 이어질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로지 나의 성장을 위해서가 아닌 내가 사는 서울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서울시민대학 시민박사 백정림)

- ☐ 서울시는 지난 9일(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민대학 ‘제7회 명예시민학위수여식’에서 ▲시민박사 12명 ▲시민석사 35명 ▲시민학사 170명, 총 217명이 명예시민학위를 받았다고 밝혔다.

□ ‘명예시민학위’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서울시민대학 학습자에게 수여하는 서울시장 명의의 비공인 학위로, 2019년 도입 이후 올해까지 총 1,893명(누적)의 시민이 학위를 취득했다.

○ 서울시민대학 강좌를 ▲100시간 이상 수강하면 시민학사를 ▲학사 취득 후 200시간을 추가 이수하고 학습 결과물을 승인받으면 시민석사를 ▲석사 취득 후 300시간의 심화 교육과 실습을 마치면 시민박사를 받을 수 있다.

□ 서울시민대학은 명예시민학위 도입 이래 올해 처음으로 시민박사 12명을 배출했다. 시민박사학위 취득자들은 공통과목, 실천학습, 전공 세미나 등 총 1년 반에 걸쳐 이론과 현장 경험을 결합한 독창적 연구 성과를 만들어냈다.

○ 강의자, 활동가, 연구자 3개 분과로 운영된 시민박사 과정을 통해 『사회적 고립감 극복에 자원봉사 활동이 미치는 영향 연구』, 『갈등의 이해와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저출생 세대가 맞이할 상제 문화의 연구』 등 서울시정, 사회 현안과 관련된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왔다. 연구 결과물은 서울시민대학 4개 캠퍼스에 비치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 이 가운데 학위수여식에서 시민박사 안기영 씨는 합계출산율 0.78명(’22년 인구동향조사 기준) 시대, 저출생 세대가 맞을 상제문화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남성 중심 제례문화를 벗어나 여성

의 참제권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친환경 장례 방식을 소개하는 등 세대교체 시기에 필요한 새로운 상제 문화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 이 자리에서 안기영씨는 “내 지적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고 해법의 지혜를 물어다 준 서울시민대학에 감사하다”라고 전하고 “연구 과정이 버거울 때도 있었지만 서울시민을 위해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라도 다시 언덕길을 오르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 수여식에는 학위 취득자와 가족·일반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명예시민학위증 수여, 우수 학습자 시상, 연구발표 등을 함께하며 축하했다.

- 서울시민대학은 올해 명예시민학위제에 ‘전공 제도’를 신설하여 교육 과정을 심화했다. 지난달 모집을 마친 시민석사 과정에는 약자동행·디지털미디어교육·도시환경 3개 전공이 개설됐으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대 환경대학원 등 유관 기관과도 연계해 진행된다.

- 또 하반기부터 모집 예정인 시민박사 과정은 ‘서울학’을 중심으로 개편해 시민의 지식과 경험이 서울시 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실천적 연구 중심 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시민박사 과정 모집은 추후 서울시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용진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은 “배움을 개인의 지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도시문제 해결로 확장, 공유해 준 명예시민학위

취득자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를 전한다”며 “서울시민대학이 학교 중심의 교육을 넘어 평생학습의 지평을 넓힌다는 사명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번	구분	주 제
1	사회문제	안전 봉사활동으로 살펴본 자원봉사 시스템 개선 방안 연구 -(서울시)안전보안관, 사)안전모니터봉사단을 중심으로-
2		시니어 세대 디지털 포모(FOMO) 해소 방안 연구 -디지털 교육의 접근성을 중심으로-
3		사회적 고립감 극복에 자원봉사 활동이 미치는 영향 연구
4		한국 저출생 대응 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제4차 기본계획 저출생 분야 중심으로-
5		갈등의 이해와 해결방안 연구 -꼬기 말고 풀기-
6		다문화 수용성 함양을 위한 평생교육으로서의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 -서울시민대학 모두의학교 공유프로그램을 중심으로-
7		고독사 조사와 예방 방안으로 주민공동체 연구 -60세 이상자 대상-
8	서울 역사	궁궐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5대 궁궐 비교
9		서울 동상의 역사적 의미와 기억의 장소 연구
10		명동지역을 중심으로 근현대사 역사분석 연구 -명례방에서 밀리오레까지-
11	문화/예술	공공예술로서 포슬린 모자이크 디자인 활용 방안
12		저출생 세대가 맞이할 상제 문화의 변화 연구 (부제: BB/MZ 세대교체기의 상제인식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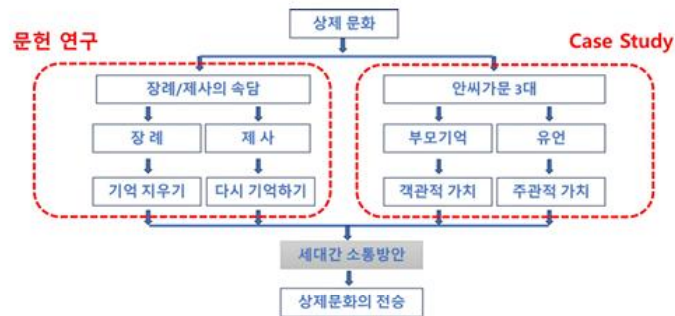
시민박사 안기영 연구 결과물

저출산 세대가 맞이할 상제 문화의 변화 연구 (부제: BB/MZ 세대교체기의 상제인식 전환)

1. 연구 배경

- 한국사회의 합계출산율은 0.78
- 1인가구비율, 젊은이 12.5 > 노인 10
- 사망자수 2005년 이후 계속 증가 25만명 → 35만명

2. 연구 방법



3. 연구 내용

1. 선행연구에서 현 시점의 문제점 확인
 - 한국 사회에서 상제문화 변천과정
 - 상제문화의 벽
2. 한국인의 상제 속담 분석 (197개 수집)
 - 죽음, 무덤, 저승, 장사, 상여, 제사, 사당 등 9개 키워드 속 한국인의 의식분석
3. 전통의 전승에 대한 세대간의 소통 방안 모색
4. BB/MZ 세대들과 인터뷰 실시
 - 인터뷰 항목(23항목): 부모의 기억과 나의 상제 계획 등
5. MZ세대의 유행어를 통한 그들의 사고 이해
 - 유행어의 특징/ 미래 속담의 조건 연구
6. 상제 의식의 분석과 재고점
 - 제사의 절차 분석
 - 전통/현대 장례방식과 비교, 장례 방식 전망
7. 해외 사례조사
 - 초고령일본 사회의 노인문제와 상제문화 사례 조사

4. 시사점

- 전통, 준다고 넘여가지 않고 받는다 고 이어지지 않는다
- 남성중심적 상제/ 저출산대책, 여성을 빼면 답이 없다
- 상제문화는 전 세대에게 필요한 교육이다

세대간의협작품
起承轉 "女"
죽음 준비 및 세대교체 준비



“쉼터에서 길동무도 사귀고, 새로운 지식도 만나고 무엇보다 제2의 삶의 언덕길을 다시 오를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